

6

2017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66



지금 그대, 양양의 품으로

90분이면 서울에서 양양의 바다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구간 개통

양양군 21개 해변 개장: 7월 7일 ~ 8월 20일(45일간)

COVER STORY



2017.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심의를 앞두고 상경 군민들과
김진하 군수가 인연을 호소하고 있다.



양양소식 · 266호

| 발행일 2017년 6월 29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66

CONTENTS

의기양양

04 군정특집

- 04 민선6기 3년 10대 군정성과
- 06 토지이용계획 개선, 시내권 도심재생정책
- 07 낙산도립공원 해제, 도로 인프라 대폭 확충
- 0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균형 있는 지역개발
- 09 전원마을 조성, 관광·휴양·쇼핑 거점도시
- 10 예산 3천억 시대·부채 없는 도시, 열린 행정 구현
- 11 각종 지표로 보는 민선6기 3년의 변화

12 이달의 군정소식

- 1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
- 16 양양에 투자수요 집중, 낙산해변 편의시설 확충

18 민선6기 3년 의정특집

제7대 양양군의회 출범 3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희망양양

- 20 테마스토리 다시 6월, 양양38선 숨길에서 평화를 말하다.
- 22 아양사람 아양사람 김진하
- 24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향교

오감양양

- 26 양양에서 데이트 할까요-미천골 자연휴양림
숲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 28 6월 양양의 이모저모

열린양양

- 30 알림마당 일자리정보,공공기관 행정정보
- 32 공익광고 낙산페스티벌(7.28~31)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yylover@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01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대비, 개발용지 161만평 확보



02 도심 재생 활력화 정책 추진



05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민선 6기 3년 군정 주요성과

‘속도감 있는 지역개발’
‘기본에 충실한 개혁’



07 전원마을 조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



08 글로벌 관광 · 휴양 · 쇼핑 도시



03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해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04 고속도로 연결도로·군도 등 도로 인프라 대폭 확충

민선6기 3년, 양양군정은 ‘명품 행복도시 양양’ 건설을 위해 3만 군민과 함께 달려왔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지역개발 가능지 확보, 고속도로·국도와 사통팔달 연결되는 도로인프라 확충에 주력했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는 관광휴양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심 재생 및 관광지개발사업에 집중해왔다. 이와 함께 일자리·주거·교통·복지·농수산 등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동안 양양군이 추진해온 양양군정 10대 성과를 조명해본다.



06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상생·소통·활력도시



09 예산 3천억 시대, 부채 없는 지자체



10 규제개혁 선도, 열린 행정 구현

01

서울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토지이용계획 획기적 개선, 개발가능용지 160만평 확보

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관리지역 3,221km²(97만평), 농업진흥지역 2,01km²(61만평) 해제

국토의 동서를 최단시간으로 연결하는 新실크로드인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은 국가적으로는 다가오는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해 우리나라 동서축의 수송 및 물동량을 강화하고 강원 북부지역의 도로 지정체를 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이끌고 도시민 유입과 사회,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해 2016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계획관리지역을 56,799km²로 늘려 개발가능 용지를 3,221km²(97만평) 확보했다. 또한 2016년 11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2%인 2,01km²(61만평)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선제대응은 지역의 관광산업과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 등 총체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02

시내권을 품격있고 활력있는 도심으로 재생시킨다

도심 재생 정책 추진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전선지중화, 양양웰컴센터 등 400여억원 투입

도시의 품격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고속도로 개통으로 유입되는 외부인의 욕구에 맞는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개별사업을 융복합해 도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양양 도심재생정책은 시내권 재생과 인근지역 연계 개발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점해온 것으로 2019년까지 400여억원의 예산이 시내권에 투입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남대천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시내권 전선지중화,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양양웰컴센터), 작은 영화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등을 조성한다. 양양 도심재생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남대천 둔치 및 전통시장 일대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관광



객 환류와 축제, 경제 선순환의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수십 년간 정체된 양양 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넓은 공원계획 철폐, 주민 재산권 행사 및 해안권 개발에 새로운 전기 마련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해안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2018년 까지 세분화된 용도지역 확정

2016년 11월 18일 낙산도립공원 8.681km²가 전면 지정 해제됐다. 낙산사, 오산리선사유적지, 하조대 등 아름다운 경관과 해변이 있는 대표 관광자원이나 35년전에 수립한 넓은 공원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패턴을 수용하지 못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사유지가 47.5%에 달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

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군 기본계획(변경)을 2017년 1월 승인받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8.682km²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2018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04

길을 잇는다, 사람이 모인다, 생활이 한 차원 높아진다 고속도로 연결도로 · 군도 등 도로 인프라 대폭 확충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간 이용객 3,000만명, 관광객 및 인구유입 위해 고속도로 연결도로, 군도, 군 계획도로 집중 개설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연간 이용객이 3,000만명, 물류비 절감이 연간 2,000억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양양 유입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동서축 물류를 담당하는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우리군은 2016년 양양IC와 국도44호선, 시내권을 연결하는 군도 3호선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군도 4호선과 5호선도 개설중에 있다.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만나는 북양양IC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50억 원을 투입, 북양양 IC와 7번 국도를 최단거리로 잇는 2.66km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준공되면 북양양 IC에서 7번 국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매년 도로 개설예산을 확보해 시내권 군 계획도로와 군도 등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오고 있다. 시내권에도 매년 30여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도로를 집중 개설하고 있다.



05

20년 군민 염원, 희망으로 풀어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 추진

2015. 8월 환경부 승인, 문화재청 부결에 행정심판 제기 ‘인용’ 이끌어 내

2015년 8월 28일은, 김진하 양양군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해 “탐방객 증가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해 분산수용을 위한 공원시설 도입이 필요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경관을 공유하도록 평등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날 관련법 개정, 두 차례 공원계획변경 신청과 좌절 끝에 20년 동안 군민들이 염원해왔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

역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처분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성명서 발표, 대규모 집회, 항의식발 등 온 군민이 저항했고 2017년 3월 3일 우리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결취소 신청을 했다. 우리군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에 관련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06

지역에 고른 투자, 균형 발전 도모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상생 · 소통 · 활력 도시

6개 읍면에 400여억원 투입, 장승리 새들마을 · 낙산사 주변 교통인프라사업도 선정

지역별, 분야별로 고른 투자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6개 읍면 모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 400여억원이 투입돼 활력을 찾고 있다

2013년 현남면, 2014년 현북 · 강현면, 2015년 서면, 2016년 양양읍·손양면이 대상지로 선정돼 2019년까지 기초생활기반시설,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폐광지로, 노후된 주택과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위생과 안전이 취약했던 서면 장승지구도 201년 새들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30여억원을 투입해 주택개량,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교통인프라가 취약했던 낙산지구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0여억원을 투입, 공원형 주차장 2개소와 해변 낭만도로를 조성하고 있어 관광객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07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한 맞춤형 전원주택지 공급, 전원정주권 거점도시 전원마을 조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 확장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대단위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 유치와 5+2day 생활패턴 계층을 보다 많이 유입하기 위해 전원마을과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조대C와 5분 거리에 68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민 전원마을인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사업(83,767㎡)이 올해 착공해 내년 분양된다. 북양양C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설악산과 동해 뷰를 겸비한 정암지구 80,126㎡에도 세대당 660여㎡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 67개를 조성한다. 현재 8m 진입도로를 개설 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주택

용지를 선 분양한다. 이와 함께 양양읍 월리, 손양면 도화리와 동호리에도 25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심확장을 위해 송암·연창·청곡지구(368,357㎡) 도시개발사업과 설악산과 동해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요 진출입로가 될 북양양C 주변지역 5.5㎢와 정암·용호지구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8

글로벌 관광객이 찾아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관광 · 휴양 · 쇼핑 거점 도시로 변화하는 양양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 지경 관광지 조성,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양양’ 운항 지원

2015년 1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착수해 기반시설을 조성중이다. 골든비치리조트 보유회사인 (주)새서울레저가 3,176억원을 투입해 손양면 동호리 2,448,198㎡ 부지에 골프장 9홀과 호텔 50실, 콘도미니엄 90실, 테라스형 숙박 60실, 단독형 숙박 200실 등 대규모 숙박단지를 만들고, 아울렛몰과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조성한다.

2016년 9월 13일 승인 고시된 지경관광지조성사업은 LF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까지 756억원을 투자해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82,561㎡에 숙박시설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요우커를 겨냥한 송이언어 푸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2019년까지 시내 권 유희공간을 매입해 공원과 2층 530㎡ 규모의 송이언어푸드 디자인센터를 구축한다.



09

2017년 최종예산 3천억원 달성, 개청 이래 최대규모, 재정건전성 양호 예산 3천억 시대, 부채 없는 지자체

재정여력은 3만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2017년 부채제로 달성

우리군은 올해 지방재정 3천억 시대를 맞는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903억 4,032만원으로,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규모다.

증액된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과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배정하는 등 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2002년 수해복구사업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차입했던 2013년도 말 기준 241억 원이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고 최종 잔액 32억원만 상환하면 부채 제로도 곧 달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군비 매칭 비율이 낮은 국비 확보노력과 교부세 산정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3천억 시대, 고품격 명품도시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10

기본에 충실한 개혁, 정도를 걷는 실용 행정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 열린 행정 구현

2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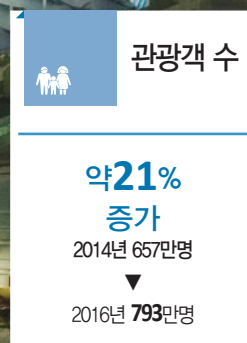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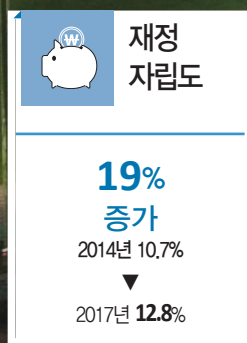
민선6기 양양군정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숨은 규제, 묵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실용행정을 구현했다.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및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매각 등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3억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평가 결과 기업 체감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든 결과다.

아울러, 노후된 청사 담장을 허물고 조경 등으로 단장하여 군민과 공유·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군정과 의정소식을 실시간으로 방송, 청취하는 IP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각종 지표로 보는 민선6기 **3년**의 변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청 부결 처분은 ‘부당’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정상궤도 올라

‘보존·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 고려하지 않아’,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진하 군수, 모두발언에서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민주적인 이동시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정상궤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심위는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군은 이번 심리를 대비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입증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왔으며 심판 당일 김진하 군수와 공무원 2명, 전문가 4명, 대리인 2명 등 총 9명이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해 문화재청 처분의 절차적 하자 동물 등 분야별 중점사안에 대해 진술했다.

김진하 군수는 모두발언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을 등산객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이동시설”이라고 말했으며 PT를 통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설명했다.

3시까지 이어진 구술심리에서는 절차적 하자와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하여 우리측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논리를 압도했다.

한편, 심의를 앞둔 오전 9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주민들이 상경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앞 인도에서 행정심판 인용을 호소하는 집회를 벌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에서는 동 사업이 문화재구역내에서 동물, 식물, 지질, 경관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으로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말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인용결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존·관리 측면에만 치중하고 문화향유권과 같은 활용의 측면을 도외시 한 아쉬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이 결정됨에 따라서 향후 2주안에 걸쳐 재결문을 작성해서 양자들에게 사건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6월 28일 중앙행정심위로부터 인용재결서 통보 받아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12. 30. 청구인에게 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문화재청, 재결의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해야

6월 28일 우리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문화재청)이 2016년 12월 30일 청구인(양양군)에게 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재결서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번 재결서는 인용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4개 분야에서 부결의 사유로 들었던 항목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며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렸다.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실체적 문제에 있어서는 4개 분야에서 우리군이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받아들여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우리군과 문화재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바로 재결의 취지에 맞는 문화재청의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군은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받고도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다면 행정심판 제

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문화재청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정부 시범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로 건강한 국립공원을 가꾸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7-554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강원도 양양군(대표자 군수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 군청길 1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
심 판 청 구 일 2017. 3. 3.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30. 청구인에게 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7년 6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통보받은 인용 재결문을 요약하여 실습니다.

| 재결서 주요 내용

○ 절차적 하자 여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시민단체 소속 위원 2명이 참여하여 부결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회의 결의가 절차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위법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식물분야

-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으나, 기존의 탐방행태로 인한 외래종 식물이나 병원균의 유입 가능성이 시설물을 이용한 탐방보다 더 클 수도 있어 보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종전보다 크게 증대할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지질분야

- 사업구간이 지구 진화단계를 이해하는 증거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상부 정류장 예정구역은 끝청봉에서 이어지는 암괴원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유로 처분하였으나, 그 동안 수행된 다양한 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학술적으로 인정된 암괴원이 분포하고 있다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지질·지형학적 보존 가치가 높다거나 지구진화단계 이해하는데 유용한 증거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다. 경관분야

- 시설물 설치·운영 시 전반적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청봉~중청봉 구간에서 5·6번 지주 및 상부정류장은 자연경관을 상당히 훼손한다는 사유로 처분하였으나,
- 경관은 바라보는 위치, 대상의 크기,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량화하거나 객관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큰 영역인 점,
- 대청봉부터 상부정류장까지는 상당한 이격거리(1.4km)를 두고 있어 경관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중청 대피소나 군 통신시설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은 배제한 채 유독 시설물만이 설악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동물분야

- 헬리콥터 운항 등에 따른 소음·진동은 산양 및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번식활동에 영향을 끼치며 개체군 고립화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처분하였으나,
- 지주수 6개, 평균높이 40m, 평균거리 약 552m이므로 산양의 이동·회피에 큰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진동공법, 소음저감장치, 소음진동방지, 산양의 주요 번식기 및 분만시기에는 공사를 지양하는 등 다양한 저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업으로 인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한다거나 고립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문화재에 대한 접근·활용의 공익적 필요성

- 청구인은 공법인의 지위에서 문화재현상변경을 구하고 있는것으로 이 사업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이용 약자에게도 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도 주된 목적 중의 하나라 할 것이고,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공익적인 성격이 적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접근·활용과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 종합결론

- 9개 부처가 모여 논의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구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하였고,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나 피청구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 및 개선 과제에서는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상충하는 상황에서 문화재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양양군, 공동주택 · 숙박시설 투자수요 급증

물치 · 강선지구 국민임대주택 178세대 착공, 우미린디오션 190세대 분양
종합운동장 인근 아파트(713세대) 및 생활형숙박시설(358실) 건축 가시화

서울~양양 90분 시대를 맞아 양양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투자가 몰리고 있다.

강현면 물치·강선지구에 추진 중인 2개 단지, 3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

1블록(BL)에는 저소득층과 노령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연면적 9,551.77㎡의 지상 10층 아파트 2동과 부속건물 6동이 신축된다. ㈜서영종합건설에 시공을 맡아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다.

2블록에는 우미건설과 삼호, LH가 190세대 규모의 브랜드아파트(양양 우미린 디오션)를 건립한다. 75㎡형 78세대와 84㎡형 112세대 등 총 19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상 6~10층 아파트 5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청약 접수중이다.

양양읍 성내리 종합운동장 인근에는 (주)리건종합건설이 713

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마치는 등 현재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상 28층 아파트 7동과 부속건물 9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29.62평 308세대와 29.84평 101세대, 32.54평 236세대, 32.88평 68세대 등 총 713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인근지역인 양양읍 성내리 90-4번지 일원에는 358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며 남문리와 서문리, 연창리, 구교리를 비롯해 강현면 물치리, 현남면 시변리 등 9~10개 지역에 아파트 신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양양읍 연창리 양우내안애(209세대)와 양양읍 내곡리 e편한세상(315세대) 아파트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남면 동산리 27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낙산 해변 관광편의시설 대폭 확충

여름해변 7월 7일 개장, 8월 20일까지 45일간
전진1리 A지구에 5,136㎡ 주차장 조성, 해변 데크길 345m 보수

여름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역 대표 관광지인 낙산해변의 관광편의시설을 대폭 확충된다.

먼저 아치형 경관조명이 있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낙산디자인거리 앞 산책로를 재정비했다.

군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강현면 주청리 1-1번지 일원 해변 산책로 345m(폭 1.8m) 구간에 대한 친환경 데크길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관광객들의 이동편의 및 경관개선을 위해 해변 백사장 내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친환경 데크로드를 설치했다.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3억 8천만의 사업비를 들여주차시설이 부족해 주말과 여름 휴가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낙산해수욕장 A지구(전진1리)에

주차시설을 확충한다.

이 지역은 횃집과 커피숍, 숙박업소 등이 밀집해 있어 여름철 가장 많은 피서객이 방문하는 구간이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문제와 함께 교통혼잡이 초래되어 온 지역이다. A지구 해변 주차장이 조성되면 해변과 인접해 14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은 낙산해변 중앙광장 인근 송림지역과 주요 도로변에 조성된 화단 에 꽃 묘목을 식재해 경관을 개선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근로자와 환경정화 인력을 투입해 송엽국(사철채송화)와 연산홍을 식재할 계획으로 제초와 시비, 물주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7대 양양군의회 출범 3년 의정 성과

군민 대의기관으로서 소통과 경청으로 양양의 더 큰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지역현안 적극 대응, 왕성한 입법활동 등 선진의회 기틀 다져

제7대 양양군의회는 출범이후 3년 동안 각종 정책기능 강화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선진의회 기틀을 착실히 다졌다. 지역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 살리기, 낙산도립공원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중앙부처 방문, 건의문 채택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24회 회기운영, 안건 285건 심의 의결

양양군의회는 2014년 7월 1일 개원 이래 올해 제222회 임시회까지 임시회 18회, 정례회 6회 등 총 24회의 회기를 운영해 총 28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6월 16일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며 6월 26일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군민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의원발의조례 14건, 열린 의회 구현

제7대 양양군의회는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총 1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해 군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활발해 해왔다. 아울러 IP방송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와 IP TV에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실시간 생중계함으로써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또한 의정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 연수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의정역량이 의안심사 등에서 내실있게 나타났다.

20년 군민 염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에도 큰 역할

제7대 양양군의회는 20년 군민염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2017년 1월 12일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비상특위)를 구성·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양양군의회는 1월 12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면담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오한석 비상특위 위원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개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군민보고회’에 참석하여 문화재청 부결에 대한 행정심판에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이기용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사업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재심의 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문화재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부결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원정 집회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

에서 양양군민 3000여명의 참여 속에서 열린 가운데, 양양군의회는 식발시위에 동참하는 등 강도 높게 항의 하였으며,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하 군수 등과 함께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통해 양양군의회와 집행부는 문화재청에 공정한 절차로 재심을 마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였다.

2월 14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양수, 추혜선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실의 박항주 비서관과 1시간이 넘는 면담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 케이블카의 경제성 논란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으며, 케이블카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의 염원을 전달하였다.

이같은 노력은 지난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착공 등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온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38선후계소표지석

다시 6월, 양양 38선 숨길에서 평화를 말하다.

1950년 한국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6월을 맞이하는 키워드는 ‘평화’이다. 특히 양양군 현남면 잔교리 38 평화마을에게 ‘평화’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이 그해 10월 1일 전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하면서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3·8선’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소 양국이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점령한 군사분계선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뼈아픈 일이 된 이곳에 평화를 갈망하는 길 한 자락을 열었는데 바로 ‘38선 숨길’이다.

역사는 흐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난 6월 중순, 38선 숨길을 걷기 위해 그 출발점이 되는 7번 국도변의 38후계소를 찾았다. 38선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어서 긴장감이 들고,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해변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무더운 날씨에 해변을 찾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서 ‘전쟁’이니 ‘38선’이니 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져 보였다.

38선 후계소에서 도로를 건너 마을로 접어드니 초입에 과거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기원하는 여러 미술 조각품들이 세워져 있다. 낚시줄을 드리우고 평화를 낚고자 하는 ‘하나 된 마음’이라는 작품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38선 숨길, 한국전쟁을 기억하다

남과 북이 ‘소통하는 길’,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38선 숨길이 완성되었다. 38선 숨길은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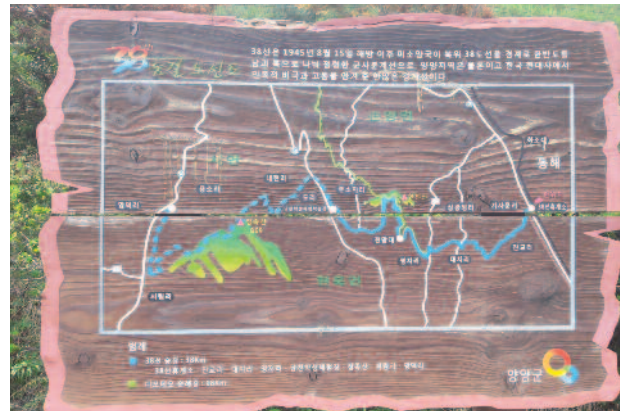
역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테마로 조성된 휴식과 역사문화 공간이다. 전쟁의 격전지였던 곳이 이제는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숲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작품 하나된 마음



숨길 안내판



숨길안내지도판

38선 숨길은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서면 현서분교 간 총 연장 38km 구간에 2개의 코스로 구성되어있다.

제1코스는 7번 국도변에 위치한 현북면 38선 휴게소에서 시작한다. 동해의 푸르고 시린 바다를 등지고 서북쪽으로 들어서 잔교리를 지나 대치리, 명지리, 남천학생체험학습장을 이어서 서면 내현리까지 해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데 거리는 28km, 소요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이다.

제2코스는 정족산 탐방로인데 서면 내현리에서 정족산을 넘어 서면 서림리로 이어지는 10km 구간으로 소요시간 7시간 정도이다. 이 코스는 소련군 점령 시절, 공산치하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은 천주교도들의 도보 길이기도 하다. 1940년대 양양 성당 주임으로 있던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는 북한 지역에 있던 교우들의 남하 길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순교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당시 ‘죽음의 38선 길’로 불리던 양양읍 월리~현북면 명지리간 18km 구간을 ‘디모테오 순례길’로 복원하고 ‘38선 길’과 ‘디모테오 순례길’의 테마를 엮었다.

이로써 38선 숨길 제1코스는 양양지역 38선 최초 돌파일을

기념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제정된 만큼 안보와 평화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체험 안보관광지로, 제2코스는 박해를 피해 월남한 천주교도인들의 ‘죽음의 38선길’인 ‘디모테오 순례길’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길은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리면서 남·북이 함께 공존했던 현북면 남천초교라던가, 이광재 신부의 혼이 깃든 양양성당, 강현면 중북리에 위치한 조선해방 기념비 등 역사의 발자취이자 유물들을 품고 있다.

38선 숨길, 평화와 휴식의 길

잔교리를 거쳐 대치리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니 마을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고, 산촌마을의 조용한 풍경이 이어졌다. 6월의 녹음이 푸르려 걷는 길은 가끔씩 숨이 차올랐다. 38선 숨길 38km를 한 번에 걸을 수 없다면 마을과 마을을 잇듯이, 쉬엄쉬엄 자주 시간을 내어 걸어봐도 좋겠다. 38선

숨길은 역사의 길이자, 휴식의 길만큼 의미를 되새기며 걷기에 좋은 길이다. 관광지가 아닌 산촌마을을 들러 가며 양양지역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이 길을 걷는 이유는 평화와 쉼을 위한 걸음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아양사람 김진하. 민선6기 3년을 맞아 새내기 직원들과 비전을 나누다.

지난 20일 김진하 군수는 지난해 임용된 양양군 새내기 공무원들과 함께 넓고 푸른 양양군종합운동장에서 만났다. 이날 대화는 내일의 주인공들의 눈으로 본 양양군의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새내기 직원들이 묻고 김진하 군수가 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죠”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절실했던 사업은 20여년간 군민들이 한 목소리로 염원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였다. 어렵게 조건부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문화재청의 부결로 난항에 빠지자 군민들의 상심이 컸던 것은 물론이다. 새내기 공무원이자 군민으로서, 전성진 씨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문화재청에서 부결 되었을 때 김진하 군수의 심정은 어떠했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문화재청에서 부결되었을 때 무척 상심했어요. 하지만 그냥 물러 설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교수들과 합숙(?)까지 하면서 토론하고 준비한

것이 이번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이끌어냈고, 이제 정상궤도에서 다시 추진 할 수 있게 돼 기뻐요. 특히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먼 길도 마다않고 함께 상경해서 힘을 실어주신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하죠.”

아양사람들이 살기 좋고, 사람과 물류가 집중되는
‘동해안의 허브도시, 양양’이 목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양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 도시가 된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김지숙씨는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 우리군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또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준비와 대책을 물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수도권~동해안 90분 시대’를 이끌어 관광, 경제, 산업, 물류 등 사회전반에 대해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어요.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해 개발가능용지를 대폭 확보해 놓았고 군 관리계획변경, 도립공원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도심재생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왔지요. 이런 사업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지역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품격있는 동해안 중심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 관광산업과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 등 총체적인 견인차 역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박용운 새내기 직원의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다. 이에 김진하 군수는 3년 동안 규제 개혁을 통한 변화를 성과로 손꼽았다.

“40여 년 간 양양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도시 개발을 위한 도전과 계획이 없었다는 뜻도 되지요. 그래서 양양의 도심 면면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남대천을 정비하고, 도심 지중화 등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양의 도시 곳곳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관광지인 낙산도립공원도 그동안 규제로 인해 개발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해변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품격있는 동해안 중심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내기 직원들은 지난해 임용된 지 채 일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양양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질문을 통해 느껴졌다. 또한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3년 동안 군정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더니, 산적인 현안이 풀릴 때까지 다시 확인하고, 끝까지 될 때까지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도 새내기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나갈 계획인지를 묻는 김미선 직원의 물음에는 “민선6기 초반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중했고 그 후에는 각종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마쳐 이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각종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고 지역경쟁력이 제고돼 야양사람들이 살기 좋고 쾌적한 곳, 사람과 물류가 집중되는 동해안의 허브도시가 되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서를 많이하고 작은 업무에도 정성과 노력을 다해주길...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김진하 군수에게 윤귀열 직원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따로 스피치 연습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며 다함께 유쾌하게 웃었다.

김진하 군수는 군정을 맡은 이후 새벽 5시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독서를 많이 한다고 대답했는데, 어쩌면 공직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어내라는 조언이 아닌가 싶다.

대답을 마치고 드넓은 양양종합운동장에 선 김진하 군수와 양양군 새내기 직원들의 모습은 선후배로, 동료로 서로 지지하며 응원하는 모습처럼 든든해 보였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향교(襄陽鄕校)는 고려와 조선이후 유생을 위한 관학교육기관(官學敎育機關)이다.

창건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사』에는 “인종(仁宗) 5년(1127) 3월에 조서를 내려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워서 가르침의 도를 넓히게 하였다.”라 하였으니 이 시기를 향교의 설립기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말엽의 문인 안축(安軸)선생은 강원도 존무사(存撫使)로 와서 양양에 향교를 중건(重建)한 것은 향토문화발전에 큰 전

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숙왕 17년(1330) 5월에 강릉도 존무사로 나가 충혜왕 1년(1331) 9월에 임기를 마치고 개성으로 돌아왔는데, 1년 4개월 재임 기간 동안에 남긴 문집 중 근재집(謹齋集)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학교)편에 수록된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는 다음과 같다.

“100여 년간 인제가 나지 않은 것은 양양의 수령이 행정에만 몰두하고 성학의 중흥에는 게을리 하였으니, 이제 곧바로 명하여 문선왕동(舊校里) 옛 학교터에 학교를 중건케 했고, 양양의 주민들과 학교 준공의 기쁨을 같이하였다.”라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숙종 10년(1684년) 8월 20일에 최상익(崔商翼) 양양부사에 의해 진사 박호(朴灝)와 최상은(崔相殷)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양주민들의 자조협동으로 흥학(興學)의 명당기지인 현재의 위치 임천리로 이전

하였다.

시설은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으로 전면에 명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재(東齋)·서재(西齋) 그리고 내삼문(內三門)을 지나 동무(東廡)·서무(西廡) 그 위에 대성전(大成殿)이 있다.

양양향교전경





명륜당



삼내문



대성전내부



배향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동재 · 서재는 명륜당을 중앙에 두고 동서에 각각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의 건물이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 10철(十哲) · 송조6현(宋朝六賢)과 동무 · 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賢)을 합쳐 39위(位)를 배향(配享)하고 춘추로 석전(釋奠)을 봉행한다.

교생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의 소위 양반집 자제와 평민집 자제로서 신분이 분명하면 입학 가능했었다. 교육과정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숭덕광업(崇德廣業)이란 유교의 이념구현을 목표로 개인의 수양, 사회기강확립, 인격도야에 힘썼다. 교과목은 사서오경(四書五經), 통감(通鑑), 사서(史書)등을 강독하고, 향교에서 행하는 향사례(鄉射禮), 거접(居接) 등을 체험케 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8 · 15해방 전후까지는 향교 건물이 잘 보전되었으나 6 · 25전쟁을 겪으면서 소실되었다. 1952도는 한국전쟁와중임에도 당시 제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대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림대표 이종하(李鍾夏)의 주선으로 대성전 · 동재 · 서재 등 건물들을 잇따라 복원함으로써 전화로 중단되었던 석전재개와 양양군의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유림들은 1954년도 향교재단 자체자금으로 명륜당을 중창(重創)후 명륜중학교를 설립하고 중등교육에 힘써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70년에는 명륜기술학교로 개편 발전을 모색했으나 자원 부족으로 1975년에 폐교되었다. 이로써 강학

기능은 없어지고 제향기능 중심으로 봄 · 가을에 석전과 초하루 · 보름에 분향을 한다.

성균관장정(成均館章程) 제12장 향교 규정에 의거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수 명 등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다.

소장전적(所藏典籍)은 칠서를 비롯하여 많은 전적과 국보급 서화 및 유물 등이 있었으나, 6 · 25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는『거접록(居接錄)』1책,『청금록(靑襟錄)』1책,『학부수록(學府隨錄)』1책,『양양기구록(襄陽耆舊錄)』1책 등이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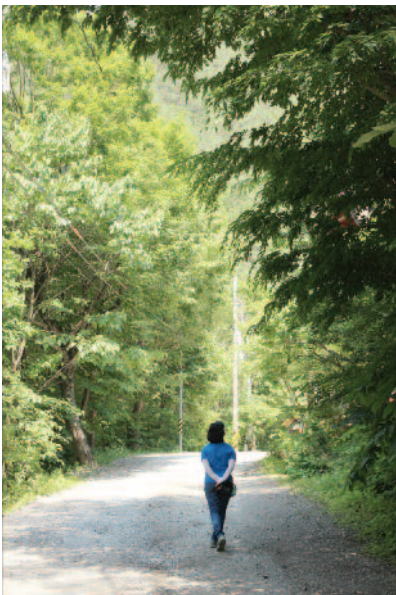


석전제

숲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아무리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속도가 다르면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가령, 함께 있으면 어색함이 감도는 어떤 부자(父子) 사이처럼 말이다.
첨첨산중처럼 가로막힌 관계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 진짜 첨첨산중으로 그들이 캠핑을 떠났다.
느긋한 숲의 속도와 함께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기 위해.



녹음(綠陰)에 귀를 기울이면 미천골 자연휴양림

만약 색깔에도 소리(音)가 있다면, 미천골의 녹음(綠陰)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들릴 것 같다. 12km에 이르는 미천골 계곡을 따라 울창하게 이어지는 숲길을 걷다 보면 박달, 고로쇠, 물푸레, 서어나무 등 여러 수종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다양한 농도의 초록빛에 감탄사가 절로 터진다. 여기에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소리와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물소리, 계절을 노래하는 새소리가 화음을 얹으면 훌륭한 협주곡이 완성되는 듯하다. 자연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거닐 때 번잡한 마음도 가다듬어진다. 이곳에서는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느긋하게 녹음(綠陰)을 즐기며 누군가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 봐도 좋겠다.

TIP

주소 :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 문의 : 033-673-1806 / 입장료 : 1,000원 (성인 기준) /
캠핑장 및 주차장 이용료 있음 / 숲 해설 및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깊은 골짜기에서 보물찾기 선림원과 불바라기 약수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미천골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보물들이 많다. 그 중 하나로 선림원지를 꼽을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순응법사가 창건하고, 홍각선사가 중창한 선림원의 절터로, 지금은 보물 444호로 지정된 선림원지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석등, 부도, 홍각선사비 등이 남아있다. 전성기에는 공양을 지을 때 쌀뜨물이 흘러 계곡을 하얗게 만들 정도였다고 하여 계곡의 이름을 미천(米川)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불바라기 약수이다. 철분과 탄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오묘한 맛을 자랑하는 이 약수에는 다양한 유래가 전해진다. 이곳에 대장간이 많아 온통 불 바닥이었다는 이야기와 물을 마시면 마치 뜨거운 불을 삼킨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미천골의 보물인 조용한 옛 절터에서 마음을 비우고, 약수 한 모금으로 건강을 채워보자.

TIP

청룡폭포 상단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불바라기 약수는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한결 수월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강에서 즐기던 그 맛 그대로 뚜거리탕

산에서 푸른 기운을 듬뿍 받았다면 이번에는 강에서 든든하게 기력을 채워본다. 양양의 젓줄인 남대천은 철따라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어주는 다양한 어종들을 품고 있다. 특히 양양 사람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남대천에서 천렵으로 잡은 뚜거리로 매운탕을 끓여 나눠 먹곤 했다. 폭 삶은 뚜거리를 채에 걸러 파, 마늘, 막장, 고추장 등의 양념과 함께 몇 시간 동안 끓여낸 다음 수제비를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캠핑 도구가 흔하지 않던 시절, 강가에 솔단지 하나 걸고 얼큰하게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야영을 즐기던 추억이 담긴 먹거리이다.

TIP

양양에서는 뚜거리를 잡을 때 '송장끌기'라는 전통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긴 버드나무 가지를 여러 겹으로 엮어 만든 도구(송장)를 끌어 강바닥의 물고기를 족대 쪽으로 몰아넣어 잡는 방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39회 양양문화제 및 제49회 군민체육대회



6월8일_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장군성황제



6월8일_양주방어사행차를 재현한 시가행진



6월8일_군민노래자랑 및 초청가수공연



6월9일_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



6월 10일_젓 먹던 힘까지!! 읍·면 대항 계주경기



6월 10일_서면VS현남 축구 결승전



사진으로 보는
6월의 이모저모



5월26일_ 양양군사회복지협회 "좋은이웃들" 소외계층 물품지원 전달



6월6일_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6월11일_ 손양면와 남양주시 호평동주민자치센터간 교류 간담회



6월14일_ 정선에서 열린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6월16일_ 2017 양양군 양성평등대회



6월19일_ 양양군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협약체결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 일정

우리군민의 운전면허 행정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강릉 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내 용
일 정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월 2회) 7월 12일, 7월 26일 / 8월 9일, 8월 23일 9월 13일, 3월 27일 / 10월 11일, 10월 25일 11월 8일, 11월 22일 / 12월 13일, 12월 27일
시 간	오후 2시 ~ 4시(2시간)
장 소	양양군청 민원실
업무내용	- 제1,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 면허증 분실 재교부 - 기타 운전면허 행정 업무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4대사회보험 사이트 다운로드

□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1577-1000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하여 신고

7월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330㎡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부세액 : 사업소연면적(㎡)×250원(세율)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우편, FAX : 신고서 제출 및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주민세 담당
 - FAX : 033-670-2147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786

7월,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 합니다.

-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 주택분, 주택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납기 : 7. 16 ~ 7. 31)
 - 주택분(10만원 초과시 나머지 1/2), 토지분 : 매년 9월(납기 : 9. 16 ~ 9. 3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가상계좌이체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107, 2148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안내

구직활동 특별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간 : 2017. 6월~10월 (매월 10일까지, 단 10월은 13일까지 신청)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군내 주소자로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청년, 대학생구직자,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교 구직자, 창업기업 폐·전직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종사자, 취창업 교육 이수청년 (신청연령 : 만15세이상 34세이하)
 -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주부 (신청연령 : 54세이하)
- 지원내용 : 강원상품권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
- 문 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및 읍면사무소 ☎033-670-2708

취업성공 특별지원

- 접수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 접수기간 : 2017.6월~10월 (매월 10일까지, 단 10월은 13일까지 신청)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을 둔 근로자 5명이상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3명 이상) 업체 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 2017.1.1일 이후 신규 취업된 자
- 신청대상
 - 만15세이상 34세이하 신규 취업자가 있는 업체에서 직접 신청
- 지원내용 : 강원상품권 15~50만원씩 (월 임금에 따라 차등) 3개월간 지급
- 문 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033-670-2708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6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6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새서울레저 (골든비치)	2명	전기, 설비, 영선	8시~18시(협의)	연2,400만원
(주)골든에스앤씨 (골든비치)	2명	주방보조원	1일 9시간(협의)	연2,400만원
꼬띠에르펜션	1명	세탁물처리원	10:00~15:00 (월3회휴무)	월120만원 (교통비별도)
굿앤굿마트 (솔비치점)	1명	영업관리직	3교대근무	월160만원 (협의)
(주)스피어테크	1명	주방조리원	09:00~18:00 (주5일)	월150만원
한반도중기	1명	경리사무원	10:00~18:00 (주5일)	월120만원
대동기업	2명	사시제작 및 시공원	08:30~18:10 토:08:30~12:50	월150만원 (협의)
(주)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6명	룸메이드	09:00~18:00	월150만원 (협의)
삼정수산	5명	수산물가공원	08:00~17:00 (주5일)	시급6,470원
태흥산업(주)	1명	생산직	08:00~18:00 (주5일)	월160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뽕춘비어	1	출세빙원	월2회휴무 18:00~02:00	월150만원이상
낙산스타비치호텔	1	룸메이드	주6일 08:30~17:00	월180만원
(주)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근무)	7	룸메이드	주6일 09:00~18:00	월170만원
백설실업	10	세탁원	주6일 09:00~18:00	월160만원
농업회사법인월드팜	1	조리 및 버섯생산	주6일 08:30~17:30	월170만원
희망실버하우스	3	요양보호사	24시간근무후 2일휴무	월150만원이상
디모테오꿈마을요양원	1	간호조무사	주5일 09:00~18:00	회사내규에 따름
	1	요양보호사	3교대	
낙산요양원	1	간호사	주5일 09:00~18:00	회사내규에 따름
	1	요양보호사	3교대근무	
코레일낙산연수원	1	룸메이드	월6회휴무 09:00~18:00	월155만원
	1	주방보조원	월6회휴무 08:00~17:00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7년 6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청정 양양남대천』 물아끼미의 ‘물 절약’ 실천요령

가정 실천수칙

- 화장실에서
 - ◆ 절수형 변기수조를 설치합니다.
 - ◆ 변기통에 페트병, 벽돌 등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 부엌에서
 - ◆ 설거지나 야채 등 음식재료를 씻을 때 설거지통을 이용합니다.
 - ◆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고 절수기를 설치합니다.
- 욕실에서
 - ◆ 샤워시간을 반으로 줄입니다.
 - ◆ 세수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합니다.
 - ◆ 양치할 때는 물컵을 사용합니다.
 - ◆ 샤워헤드를 절수형으로 바꿉니다.
- 빨래할 때
 - ◆ 빨래감은 한번에 모아서 합니다.
 - ◆ 세탁기는 수위는 알맞게 조절합니다.
 - ◆ 행굼은 적정횟수, 마지막 행굼물은 재이용 합니다.
- 기타
 - ◆ 세차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합니다.
 - ◆ 수도물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기업 실천수칙

- ◆ 물을 많이 쓰는 곳에 물재이용 시설을 설치합니다.
- ◆ 물소비량을 줄이는 생산공정을 선택 합니다.
- ◆ 폐수를 버리거나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 ◆ 목욕, 숙박업소에는 절수기를 설치 합니다.
- ◆ 한 기업 한 하천 살리기를 적극 실천 합니다.

공공기관 실천수칙

- ◆ 물 절약 목표를 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 ◆ 절수기와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적극 장려합니다.
- ◆ 수도관 누수 방지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합니다.
- ◆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물 절약을 실천 합니다.
- ◆ 가정과 기업의 물 사랑 운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양양군 상수도사업소 ☎ 033-670-2692

치매가족 자조모임 “희망찾기”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자조모임 “희망찾기”으로 가족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7.7월~9월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1시30분
- 장 소 : 보건소 다목적실
- 대 상 : 치매를 앓고있는 어르신 가족 누구나
- 내 용 : 자조모임 프로그램 참여 및 가족 간 소통
- 신 청 : 양양군보건소 정신건강

☎ 033-670-2937(2565)

☎ **안보신고/상담 : 국정원(111),
기무사령부(1337), 전군신고망(1338)**
* **의아선박/잠수함 신고 : 해군1함대
(033-539-4040)**

◆ **신고포상금 : 간첩, 간첩선 발견 시
최고 20억원**

7월의 마지막주 낙산해변에서 펼쳐지는
판타스틱 축제

2017 낙산비치페스티벌 NAKSAN BEACH FESTIVAL

2017. 7. 28. Fri
- 7. 31. Mon

주/요/행/사

7.28.
Fri

미스터오션선발대회
& 불꽃놀이

7.29.
Sat

힙합&비키니
페스티벌

7.29~30.
Sat~Sun

디클럽파티

7.30.
Sun

쇼!일요일
일요일밤에

7.31.
Mon

낙산비치노래자랑
Season 3

도끼 더콰이엇 코요태 김조한 창모 김효은 달샤벳 스위치 아이시어
미두유 뉴챔프 로이도 너티보이즈 나상도 설하운 에이시드 마이크로킹
대한민국 최고 비키니모델과 초콜렛복근모델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특설무대

문 의 |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251, 2721